

BMW Photo Space에서는 2015년 세 번째 靑사진 프로젝트 임형태의 《feel, 그 낮설음의 시작》을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28일 까지 선보인다. 임형태는 자화상의 방법론을 통해 성(性)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 등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작업을 이어왔다.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의문들은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의 관계로 이어졌으며, 평등하지 않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아낸 연작 <I see,(2010-2011)>와 <feel,(2012-2014)>을 동시에 선보인다. 이 연작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Elisabeth Kübler Ross)가 말한 ‘죽음을 수용하는 5단계 이론’에 입각한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으로서, 각각 1단계 부정(denial)과 2단계 분노(anger)를 나타낸다.

‘부정(denial)’의 단계를 나타내는 <I see,>는 자연을 배경으로 이질적인 상황들을 연출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그것에서 비롯된 감정 상태를 드러낸 작업이다. 사진에 홀로 등장하는 임형태는 지천에 널린 물고기를 마다한 채 어망 가득히 탁구공을 담아내고, 도시를 연상시키는 소품들이 배치된 숲 속 한가운데를 배회한다.

임형태를 둘러싼 이 숲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석된 공간들로 타인과의 거리 두기와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나타낸다. 그리고 외부인을 차단한 이 단절된 공간은 임형태의 숲을 더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장소로 변모시킨다. 스스로가 경계를 만듦으로써 벗어날 수 없는 현실과 삶의 무게를 드러내는 이 작업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죽음에 대한 단계를 맥락화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2단계 '분노(anger)'를 나타내는 신작 <feel,>은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 한 <I see,>와는 달리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설화를 차용하고 있다. 사진에서 임형태는 죽음에 순응하는 설화 속 주인공들을 대신해 분노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됨으로써 그 분노를 표출한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편적인 격노가 아닌 분노에서 비롯된 다양한 감정적 형태들로 나타난다. 사진 속 설화에서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한 심청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혼절하고 만다. 그리고 '해님과 달님'에서 아이들의 어머니는 자신을 해친 호랑이를 죽이지만 또 다른 호랑이의 등장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한다. 이때 적극적으로 개입된 분노에도 전복되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들은 이야기 밖의 관객들에게 또 다른 분노를 유도하게 된다. 이렇듯 작가는 분노에 기반한 감정적 형태들을 한탄, 갈등, 반항, 후회, 수용이라는 행동으로 치환시키며, 이야기에 짓눌려 있던 주인공들의 감정적 상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죽음의 수용과정에서 시작된 임형태의 연작은 순환이 전제된 자연을 배경으로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보편적 이야기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은 감정과 삶의 관계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 관계는 개인의 사건에서 시작된 감정과 그 감정들이 삶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담아낸 두 연작을 통해 더욱 견고해진다. 사진 장르가 다루어 온 삶과 죽음에 대한 대다수의 내러티브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현을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개인의 이야기와 설화를 차용한 임형태의 작업은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방법론에 연극적 요소를 더해 삶과 죽음을 재현하는 측면에서 탈 전통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동시대가 지향하는 사진의 재현적 의미에 틈을 내는 행위로서, 현대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